

CONCLUSION

Let me refer to the basic premium equation being.

$$\text{Premium} = (Pxc) + E$$

Where P=Probability of a loss occurring

c=Average size of loss which occurs

E>Loading for expenses and profit.

The first term of the equation (pxc) gives the loss expectancy or pure premium. The probability of loss "p" is estimated by observing the number of times the event occurs during a given time period and dividing this figure by the number of units exposed to loss. As you would become aware, KFPA, jointly established by 10 Local Underwriters by virtue of KFPA Law, gives its utmost effort to reduce the probability of loss (p) and to minimize the average size of loss (c), at one portion of the expenses loaded in the premium (E), by efficiently effecting inspections on the units exposed to loss, by improving the standards of the inspections, and by educating and enlightening the public.

It has been generally realized that the evaluation of fire hazards of insurance objects should not rely on statistical methods only, and the underwriting survey is desirable to be made by the engineers. Consequent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insurers adopt an active risk management or loss prevention method by means of engineering and education, including fire safety inspection and research activities.

It was learned that in Switzerland, the so-called Gretener Method for systematic determination and evaluation of factors in figures for better risk management has been applied for several years, and the result was found to be very successful. (The 4th International Fire Seminar held in Zurich in 1973).

Unless the insurers are interested in modern insurance engineering and education to the public for the active risk management, the future of insurance business, I dare to say, seems very dim.

Thank you.

火災特種保險에 있어서의 危險管理

- ◇.....이 글은 1978年 10月初 싱가포르에서 開催된 第9次 東亞經.....◇
 ◇.....亞保險會議(EAIC)에서 本協會 業務擔當 李相臣理事가 發.....◇
 ◇.....表한 演說文 우리말 要約으로 主題인 "Risk management.....◇
 ◇.....in fire and Accident insurance"의 全文을 함께 掲載.....◇
 ◇.....한다. (編輯者)

概要

火保協會는 安全點檢, 調查, 研究, 啓蒙·保險, 消火器機寄贈·資金貸與, 等 火保法上의 諸般業務를 遂

行하고 있다. 火保協會의 業務性格이 이러하므로 自然히 危險管理(risk management) 全般을 다루지 않고 防火라는 側面에 重點을 두어 論題를 다루었다. 急激한 經濟 및 現代工學의 發展은 社會文化活動의

樣相에 多樣한 變化를 주었고, 防火를 包含한 “危險管理”라는 側面에서 많은 問題點을 던져 주었다. 特別히 最近 數年間 保險業者들은 未曾有的 大火로 인하여 크게 苦戰하고 있는 중이다. 韓國의 경우, 1974년부터 3年間 2萬弗 以上の 損害를 내게 한 大火災件數는 全體 大火災件數의 1.4%에 不過했으나 그 被害額은 全體 被害額의 84.5%를 顯示하였다. 이러한 傾向은 美國도 類似한데 其他諸國도 例外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大形火災被害의 增加要因으로는 人口의 都市集中, 道德觀念의 隨落으로 인한 放火의 增加, 工場에서의 自動工程 과정의 增加等 여러 가지가 指摘되고 있다.

한 가지 注目할 事實은 國民總生産 即 GNP와 火災被害는 相關關係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가지 側面에서 觀察하기로 한다. 첫째로, 各國의 火災被害增加率을 GNP增加率과 比較할때 前者가 오히려 後者보다 높다는 現象이다.

둘째로, 先進諸國에서 火災被害가 GNP에서 차지하는 率은 살펴 보면 1950년부터 1974年の 平均은 0.07% 내지 0.32%이나 最近에는 이것이 0.5% 以上으로 增加했으며 未久에는 1%線까지 될것이라는 悲觀的인 見解까지 있을 程度이다.

火災被害의 大形化는 인플레이와 關係있다는 見解도 있으나 이를 充分히 감안해도 이러한 趨勢는 도저히 否認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産業이 發展되고 GNP가 높아 갈수록 大形被害는 더욱 높아 질 것이라는 推定은 充分히 하게 된다.

그렇다면 効果的인 火災被害의 減少方案은 무엇인가? 防災弘報, 安全點檢, 法規改正, 放火防止等 여러가지 方便이 있을 수 있겠으며, 이러한 方便들은 積極的으로 保險業務에도 導入되어야 한다. 美國의 FM 스위스 防火協會等의 成果는 技術導入으로 인하여 防災效果가 얼마나 擧場되는가 하는 좋은 本보기를 提示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火災로 인한 人命 및 財產上의 損害를 減少시키고 이로 인한 災害를 迅速히 復舊하고 人命被害에 대한 適正한 補償을 하게 함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政府는 1973年 特

別法을 制定하였다. 이 법에 따라 “特殊建物”의 所有主는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에 義務的으로 加入하고 火保協會의 點檢을 받도록 되어 있다.

現在 火保協會는 10個損保社(社員 會社)를 대신하여 몇 가지 保險種目을 取扱하고 있으며 擧收保險料의 20%를 火保協會費로 징수 防災 및 保險서비스 活動에 使用하고 있다.

技術 서비스面으로 보면 安全點檢, 隨時點檢, 特別點檢, 確認點檢等을 통하여 通報하며 行政當局은 多大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 點檢結果는 關係當局에 이를 土庫로 火災要因을 除去하도록 特建所有主에 行政命命을 내리고 있다. 그밖에도 當局에 點檢結果의 分析을 통한 防災上의 問題點解決을 建議하여 法規를 改正하는 데 參考되도록 하는 등, 防災를 위해 努力하고 있다.

點檢結果改修狀況을 해마다 比較해 보면 各項目別로 火災要因이 점차 改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點檢의 效果도 立證된다. 또한 特殊建物의 罹災도 감소됨으로써 點檢의 効用性은 더욱 確實히 드러나고 있다.

基礎保險料方程式面에서 이를 살펴보면 方程式 即 保險料=(Pxc)+E에서 E의 一部를 使用하여 P와 C를 減少시켜(防災活動) 結局 保險料를 引下시킬 수 있다는 相關關係를 立證할 수 있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보아 保險對象建物의 火災被害可能性을 調查하기 위해 大數의 法則이나 過去統計에만 依存하던 時代는 이제 지났으며 保險業務에의 技術導入은 매우 바람직 하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underwriting survey를 함에 있어 기술자들이 PMC를 數値로 나타내는 새方法(Gretene Method)이 考案되어 커다란 效果를 거두고 있으며, 保險業務 특히 risk management에 技術을 導入한 FM, Kemper 등은 놀라운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 保檢業者들이 이같은 예에 따라 새 保險技術 및 啓蒙 危險管理等에 좀더 積極的인 觀心을 가지지 않는다면 保險産業의 장래는 決코 밝다고 볼 수 없다.

<끝>